

Korean Chemical Society Organic Chemistry Division

대한화학회 유기화학분과회

NEWS LETTER

2026년도 유기화학분과회 행사 일정

- 2월 11일 (수)~2월 12일 (목) 제45회 유기화학분과회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 한국화학연구원 대전 본원
- 4월 15일 (수)~4월 17일 (금) 제137회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대회, 제주컨벤션센터
- 6월 14일 (일)~6월 17일 (수) OM&CAT-7,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 7월 6일 (월)~7월 8일 (수) 제26회 유기화학분과회 하계 워크숍,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 10월 28일 (수)~10월 30일 (금) 제138회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수원컨벤션센터
- 12월 4일 (금)~12월 5일 (토) 제254회 유기화학분과회 세미나, POSTECH

제7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rganometallics and Catalysis (OM&Cat-7)가 오는 6월 14일부터 17일 까지 4일간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수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학회에는 유기금속화학 및 촉매 분야의 세계적 연구자 26명이 연사로 참여하며, 6개의 기초강연과 다양한 학술 발표가 진행됩니다. 또한 300명 이상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최신 연구 성과와 미래 연구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 및 프로그램은 본 뉴스레터 5월호 공지사항에 안내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6회 유기화학분과회 하계 워크숍이 2026년 7월 6일(월)부터 8일(수)까지 2박 3일간 부산항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워크숍은 P급 연구자뿐만 아니라 학생회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학술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본 뉴스레터 5월호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유기화학분과회 운영진 드림

제137회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제137회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제137회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가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많은 유기화학분과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유기화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문적 교류와 협력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16일 유기화학분과 오전 세션은 “Oral Presentations for Young Organic Chemists”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박창희 학생(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Amine Carboxyborane-Mediated Halogen Atom Transfer for Transition-Metal-Free C-C Bond Formation”을, 박철준 학생(한국과학기술원)이 “Sequence-Specific Covalent Labeling of RNA in Cells”를, 박수호 학생(부산대학교)이 “Rapid Functionalizable Film Formation on Various Surfaces via Enzymatic Oxidation of Tyrosine Derivatives”를, 니틴 푸데리 학생(전남대학교)이 “Dichloromethane as a Coupling Reagent for Direct Amide Bond Formation”을, 김모건 학생(서울대학교)이 “Homologative Synthetic Logic for Alkene Diversification”를, 김범호 학생(서울대학교)이 “Total Synthesis of Phalarine via Indole-Indole Coupling Strategy”를 주제로 각각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으며, 본 세션에서는 이원철 회원님(강원대학교)께서 조직책임자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제137회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① 박창희 학생 발표, ② 박철준 학생 발표, ③ 박수호 학생 발표, ④ 니틴 푸데리 학생 발표, ⑤ 김모건 학생 발표, ⑥ 김범호 학생 발표, ⑦ 이원철 회원님(조직책임자)

제137회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16일 유기화학분과 오후 세션은 심상철 학술상 시상 및 수상 강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기화학분과 정원진 회원님(광주과학기술원)께서 심상철 학술상을 수상하셨으며, "A Trite Tale of Project Evolution"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연구 과정 속 다양한 경험과 고민, 그리고 프로젝트의 발전 과정을 흥미롭게 소개해주셨으며 참석하신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원진 회원님의 제23회 심상철 학술상 강연 및 기념사진

제137회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이후 진행된 “Symposium I: Frontiers in Synthetic Organic Chemistry” 세션에서는 홍순혁 회원님(한국과학기술원)께서 “How Synthetic Organic Chemistry Can Contribute to Solving the Plastic Waste Challenge”를, 윤소원 회원님(한양대학교)께서 “Discovering Novel Mechanistic Approaches to Building Unique Molecular Scaffolds”를, 윤재숙 회원님(성균관대학교)께서 “Accessing Complex Stereocenters through Copper-Catalyzed Enyne Transformations”를, 김상희 회원님(서울대학교)께서 “The Asymmetric Synthesis of α,α -Disubstituted α -Amino Acids without External Chirality”를 주제로 각각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강연 후에는 다양한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며, 본 세션에서는 신승훈 회원님(한양대학교)께서 조직책임자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① 홍순혁 회원님 강연, ② 윤소원 회원님 강연, ③ 윤재숙 회원님 강연, ④ 김상희 회원님 강연, ⑤ 신승훈 회원님(조직책임자)

제137회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17일 유기화학분과 오전 세션에서는 “Symposium II: Molecular Design and Synthetic Strategies in Macromolecular and Supramolecular Chemistry”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임지우 회원님(경희대학교)께서 “Visible-Light-Mediated Post-Polymerization Modification”를, 김경택 회원님(서울대학교)께서 “Sequence-Defined Polymers as Precisely Defined Building Blocks for Crystallization-Driven Self-Assembly”를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이은지 회원님(광주과학기술원)께서 “Decoding Semicrystalline Block Copolymer Assembly into Aqua Nanoparticles via LP-TEM”을, 조동규 회원님(인하대학교)께서 “Exploring the Chemistry of 1,7-Naphthiporphyrin Derivatives through a Molecular Engineering Approach”를 주제로 연구 동향과 새로운 접근 전략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본 세션에서는 조우경 회원님(충남대학교)께서 조직책임자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① 임지우 회원님 강연, ② 김경택 회원님 강연, ③ 이은지 회원님 강연, ④ 조동규 회원님 강연, ⑤ 조우경 회원님(조직책임자)

제137회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17일 점심시간에는 유기화학분과 포스터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총 251편의 포스터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연구 아이디어와 학문적 의견을 활발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함께 진행된 기기 전시회를 통해 최신 연구 장비와 분석 기술을 살펴보고 연구 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기화학분과 포스터 세션 및 기기 전시회 전경

제137회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17일 유기화학분과 오후 세션에서는 2026 대한화학회 학술상 기념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희승 회원님(한국과학기술원)께서 2026 대한화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셨으며, “Chiral Molecular Architectures from Helical Foldamers”를 주제로 학술상 기념 강연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독창적인 분자 구조 설계와 응용 가능성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내용을 소개해 주셨으며,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희승 회원님의 2026 대한화학회 학술상 기념 강연 및 기념사진

제137회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이어 진행된 “Symposium III: Emerging Strategies & Perspectives in Organic Synthesis” 세션에서는 서상원 회원님(대구경북과학기술원)께서 “NiH-Catalyzed Enantioconvergent C–C Bond Formation with Unsaturated Hydrocarbon”를, 장원준 회원님(이화여자대학교)께서 “Overcoming Reactivity Mismatch in Cross-Electrophile Coupling by Ligand-Controlled Activation Order”를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이정호 회원님(한양대학교)께서 “Harnessing π - π Interactions for Site-Selective Functionalization of Unsymmetrical Diols”를, 동방선 회원님(서강대학교)께서 “Transforming Inert Functional Groups into C–C Bond-Forming Partners via Single-Electron Pathways in Nickel Catalysis”를, 최이삭 회원님(충북대학교)께서 “Electro-Organic Synthesis: From Achieving Sustainability to Exploring Terra Incognita”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유기합성 전략과 반응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며, 정병혁 회원님(대구경북과학기술원)께서 조직책임자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① 서상원 회원님 강연, ② 장원준 회원님 강연, ③ 이정호 회원님 강연, ④ 동방선 회원님 강연, ⑤ 최이삭 회원님 강연, ⑥ 정병혁 회원님(조직책임자)

제137회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아울러 유기화학분과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원 간 친목과 교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영호 회장님께서 유기화학분과의 활발한 학술 활동과 회원 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자리를 더욱 뜻깊게 빛내 주셨습니다. 이어 이흥근 학술부회장님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셨으며, 정원진 회원님의 심상철 학술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신입 교원 소개 시간에는 권용석 회원님(서울대학교), 김민 회원님(경희대학교), 김정곤 회원님(한양대학교), 박진균 회원님(서울대학교)께서 참석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신 회원님들인 만큼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후 자유로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며 유기화학분과 회원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① 이영호 회장님 말씀, ② 정원진 회원님 수상 축하 말씀, ③ 권용석 회원님 소개, ④ 김민 회원님 소개, ⑤ 김정곤 회원님 소개, ⑥ 박진균 회원님 소개

2026년도 유기화학분과회 7월 행사 일정

2026년도 유기화학분과회 행사 일정

- 2월 11일 (수)~2월 12일 (목) 제45회 유기화학분과회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 한국화학연구원 대전 본원
- 4월 15일 (수)~4월 17일 (금) 제137회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대회, 제주컨벤션센터
- 6월 14일 (일)~6월 17일 (수) OM&CAT-7,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 7월 6일 (월)~7월 8일 (수) 제26회 유기화학분과회 하계 워크숍,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 10월 28일 (수)~10월 30일 (금) 제138회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수원컨벤션센터
- 12월 4일 (금)~12월 5일 (토) 제254회 유기화학분과회 세미나, POSTECH



제26회 유기화학분과회 하계 워크숍

제26회 유기화학분과회 하계 워크숍 프로그램

7월 6일 (월)

13:30-15:30	학생구두발표 I	17:00-17:20	Scifinder 교육
15:30-17:00	포스터 세션 I	17:20-18:20	기조 강연: Scott J. Miller (Yale University)

7월 7일 (화)

9:30-11:30	학생구두발표 II	16:30-17:30	젊은 유기화학자상 수상강연 (2명)
11:30-13:00	점심식사 (도시락 제공)	17:30-18:10	특별 강연: 이필호 (강원대학교) "한국을 빛낸 유기화학자들"
13:00-15:00	학생구두발표 III	18:10-18:40	학생 수상자 시상 (구두 및 포스터)
15:00-16:30	포스터 세션 II		

7월 8일 (수)

09:00-11:00	유기화학분과회 발전방안 논의	11:00-11:10	폐회식
-------------	-----------------	-------------	-----



2026 대한화학회 유기화학분과회 하계 워크숍

공식 숙소 예약 안내

학술대회 참가자를 위한 **특별 요금**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예약을 권장드립니다.



전용 숙박 예약 페이지를 이용하세요 !

대한화학회 유기화학분과회 전용 숙박예약
kcsorganic2026.mice.link

- 예약 시, 요금을 **분할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 + 법인카드)
- 체크아웃 전까지 **결제 카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결제로만 가능)
- 객실별 최대 인원 수 만큼 **실제 투숙자 명단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예약 후 [예약조회] 메뉴에서 **증빙**을 위한 숙박확인서, 카드영수증을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대한화학회 학술상 수상자 리스트

대한화학회 학술상 수상자 리스트

성좌경 인하대학교 (수상연도 : 1971)	이태규 KAIST (수상연도 : 1976)	최상업 서강대학교 (수상연도 : 1981)	최규원 서울대학교 (수상연도 : 1986)
장세헌 서울대학교 (수상연도 : 1989)	최재시 연세대학교 (수상연도 : 1992)	이 은 서울대학교 (수상연도 : 1995)	정경훈 KAIST (수상연도 : 1996)
최진호 서울대학교 (수상연도 : 1997)	진종식 서강대학교 (수상연도 : 1998)	김기문 POSTECH (수상연도 : 1999)	서세원 서울대학교 (수상연도 : 2000)
김광수 UNIST (수상연도 : 2001)	유 룡 KAIST (수상연도 : 2002)	조봉래 고려대학교 (수상연도 : 2003)	전철호 연세대학교 (수상연도 : 2004)
박준택 KAIST (수상연도 : 2005)	남원우 이화여자대학교 (수상연도 : 2006)	고재중 고려대학교 (수상연도 : 2007)	이창희 강원대학교 (수상연도 : 2008)
이명수 연세대학교 (수상연도 : 2009)	장석복 KAIST (수상연도 : 2010)	김봉수 KAIST (수상연도 : 2011)	이상엽 서울대학교 (수상연도 : 2012)
천진우 연세대학교 (수상연도 : 2013)	안교한 POSTECH (수상연도 : 2013)	송충의 성균관대학교 (수상연도 : 2013)	김성진 이화여자대학교 (수상연도 : 2013)
주태하 POSTECH (수상연도 : 2014)	정택동 서울대학교 (수상연도 : 2014)	이심성 경상대학교 (수상연도 : 2014)	노경태 연세대학교 (수상연도 : 2014)
박준원 POSTECH (수상연도 : 2015)	윤주영 이화여자대학교 (수상연도 : 2016)	김동표 POSTECH (수상연도 : 2017)	김동호 연세대학교 (수상연도 : 2018)
이필호 강원대학교 (수상연도 : 2019)	김종승 고려대학교 (수상연도 : 2020)	김상규 KAIST (수상연도 : 2021)	박정희 고려대학교 (수상연도 : 2022)
조민행 고려대학교 (수상연도 : 2023)	강영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수상연도 : 2024)	이철범 서울대학교 (수상연도 : 2025)	이희승 KAIST (수상연도 : 2026)

2026 대한화학회 학술상 수상자



이희승

KAIST 화학과

Email | hee-seung_lee@kaist.ac.kr

Homepage | <http://hslee.kaist.ac.kr>

TEL | 042-350-2846

Education

- Ph.D.(1996) Department of Chemistry, KAIST
M.S.(1992) Department of Chemistry, KAIST
B.S. (1990) Department of Chemistry, KAIST

Position

- 2025 - Present Director, InnoCORE AI-CRED Institute, KAIST
2024 - Present Endowed Chair Professor, KAIST
2025 - 2025 President, Organic Chemistry Division, Korean Chemical Society
2018 - 2025 Director, Center for Multiscale Chiral Architectures (CMCA), SRC
2004 - Present Assistant/Associate/Full Professor, Department of Chemistry, KAIST
1999 - 2003 Post-Doc, Department of Chemistry, Univ. of Wisconsin, Madison
1996 - 1999 Senior Scientist, Samsung Fine Chemicals R&D Center, Daejeon

Representative Publications

1. Hong, J.; Kim, J.; Gong, J.; Jeong, S.; Park, Y. S.; Yoo, S. H.; Kim, J.; Lee, H.-S.*, "Programmable Helicity and Macrocyclic Symmetry in β -Peptides via Site-Selective Thioamide Substitution", *J. Am. Chem. Soc.* **2025**, *147*, 44216-44224.
2. Kim, J.; Hong, J.; Park, M. J.; Lee, H.-S.*, "Tailoring Enantiomeric Chiral Channels in Metal-Peptide Networks: A Novel Foldamer-Based Approach for Host-Guest Interactions", *Adv. Mater.* **2023**, *2305753*.
3. Jeong, S.; Zhang, L.; Kim, J.; Gong, J.; Ok, K.; Lee, Y.; Kwon, S*.; Lee, H.-S.*, "Conformational Adaptation of β -Peptide Foldamers for the Formation of Metal-Peptide Frameworks", *Angew. Chem. Int. Ed.* **2022**, *61*, e202108364.
4. Yoo, S. H.; Lee, H.-S.*, "Foldectures: 3D Molecular Architectures from Self-Assembly of Peptide Foldamers", *Acc. Chem. Res.* **2017**, *50*, 832-841.
5. Kwon, S.; Kim, B. J.; Lim, H.-K.; Kang, K.; Yoo, S. H.; Gong, J.; Yoon, E.; Lee, J.; Choi, I. S.; Kim, H.*; Lee, H.-S.*, "Magnetotactic Molecular Architectures from Self-Assembly of β -Peptide Foldamers", *Nat. Commun.* **2015**, *6*, 8747.
6. Kwon, S.; Shin, H. S.; Gong, J.; Eom, J. H.; Jeon, A.; Yoo, S. H.; Chung, I. S.; Cho, S.J.*; Lee, H.-S.*, "Self-Assembled Peptide Architecture with a Tooth Shape: Folding into Shape", *J. Am. Chem. Soc.* **2011**, *133*, 17618-17621.

2026 대한화학회 학술상 수상자 인터뷰

대한화학회 학술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연구해 온 학생들과 동료 연구자들, 그리고 늘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화학계 선후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오랜 시간 함께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온 연구실 구성원들과의 공동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1. 이번 대한화학회 학술상 수상의 기반이 된 대표 연구 성과와, 해당 연구가 유기화학 분야에 갖는 학문적 의미를 소개해 주십시오.

제 연구는 비천연 펩타이드 기반 폴다머(foldamer)를 이용하여, 분자 수준의 구조 정보가 어떻게 더 큰 차원의 자기조직 구조와 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탐구해 온 일련의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기화학이 주로 개별 분자의 합성과 반응 개발에 초점을 두어 왔다면, 저는 잘 설계된 분자 단위가 스스로 조직화되며 새로운 형태와 기능을 만들어내는 원리에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특히 rigid하고 programmable한 폴다머를 활용하여, 기존 유기 분자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교한 3차원 구조체와 계층적 카이랄 구조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shape와 chirality가 higher-order architecture와 function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Foldecture라는 개념을 제안하였고, 폴다머의 2차 구조와 방향성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정의된 형태, 대칭성, 기능을 갖는 3차원 유기 분자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금속-폴다머 네트워크 연구로 이를 더욱 확장하여, handedness와 conformational adaptation을 바탕으로 원자 수준에서 정의된 chiral channel과 기능성 내부 공간까지 설계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제 연구는 유기화학이 단순히 분자를 만드는 학문을 넘어, 분자로부터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설계하고 조직화하는 학문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3회 심상철 학술상 수상자 인터뷰

2. 연구를 수행하시면서 일관되게 유지해 오신 연구 철학이나 문제 해결 방식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연구를 하면서 늘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은, 새로운 구조나 현상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흥미로운 예외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끝까지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저는 좋은 연구란 복잡한 결과를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현상 속에서 본질적인 설계 원리와 작동 원리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과정에서도 “왜 이런 구조가 형성되는가”, “무엇이 이 방향성을 결정하는가”, “이 현상을 어디까지 일반화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꾸준히 던지려 노력해 왔습니다. 실제로 제 연구도 단지 특이한 모양의 구조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shape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molecular design에 의해 encode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구조적 정보가 자기조립과 기능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관심이 더 확장되어, chemistry의 미래는 단순히 molecules를 만드는 데 있지 않고, architecture와 complex systems를 설계하고 orchestrate하는 데 있다는 생각을 더욱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개별 결과의 축적을 넘어, chemical complexity를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설계 원리를 찾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3. 연구실을 이끌어 오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해 온 가치나, 후학 지도에서 특히 강조해 온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구실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은, 좋은 연구는 결국 좋은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연구실은 단순히 결과를 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실험 기술이나 지식을 익히는 것 이상으로, 질문하는 태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동료와 협력하며 책임 있게 연구하는 자세를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자신의 연구를 진지하게 대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연구와 성장을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연구는 대개 익숙한 길보다 불확실한 길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를 해석하는 태도는 늘 엄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의 성과는 훌륭한 학생들과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저는 연구실이 좋은 논문을 내는 곳이면서 동시에 좋은 연구자를 길러내는 공간이 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새로운 구조와 원리를 발견하는 기쁨 못지않게, 젊은 연구자들이 자기만의 질문과 시야를 갖춘 과학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유기화학자

유기화학분과 NEWSLETTER의 '이야기가 함께 하는 유기화학분과회'를 시작으로, 현재 '대한민국을 빛낸 유기화학자' 연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유기화학의 초창기를 이끌어주신 총 25분의 선배 유기화학자들의 업적과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빛낸 유기화학자' 세션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션에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님들께서는 원고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원고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이야기로 유기화학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유기화학자 원고 리스트

故심상철 교수
KAIST 화학과
(고훈영, 2020-1)

故이은 교수
서울대 화학과
(이덕형, 2020-3)

김용해 교수
KAIST 화학과
(박두한, 2020-4)

정봉영 교수
고려대 화학과
(김필호, 허정녕, 2020-5)

김성각 교수
KAIST 화학과
(장석복, 이필호, 2020-6)

서정현 교수
서울대 화학과
(신승훈, 이동환, 2020-7)

故강석구 교수
성균관대 화학과
(김재선, 2020-8)

故윤능민 교수
서강대 화학과
(안진희, 2020-9)

김관수 교수
연세대 화학과
(정규성, 2020-9)

윤웅찬 교수
부산대 화학과
(조대원, 2020-10)

김성수 교수
인하대 화학과
(최승룡, 임상철, 2020-10)

김득준 교수
서울대 화학과
(홍승우, 2020-11)

김동한 교수
포스텍 화학과
(이현수, 2020-11)

故장세희 교수
서울대 화학과
(정봉영, 2020-12)

조봉래 교수
고려대 화학과
(김환명, 2020-12)

故한치선 교수
연세대 화학과
(장우동, 김관수, 2021-3)

故이희운 교수
KAIST 화학과
(손정훈, 2023-5)

강성호 교수
KAIST 화학과
(정병혁, 이원철, 이희승 2023-7)

채영복 과기부 장관
한국화학연구원장, 대한화학회장
(이필호, 2023-9)

전철호 교수
연세대 화학과
(김동수, 이혁, 박정우, 2023-11)

정성기 교수
POSTECH 화학과
(장영태, 2025-3)

심상철 교수
경북대 화학과
(교수님 제자 일동, 2025-9)

김병현 교수
POSTECH 화학과
(김병현 교수님 제자들, 2025-10)

고종성 교수
GENOSCO (주) 대표
(이필호, 2025-11)

송충의 교수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양정운, 배한용, 2025-12)

대한민국을 빛낸 유기화학자 유찬모(柳燦模) 교수님



유찬모 교수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유찬모 교수는 1954년 음력 8월 3일, 황해도 출신 신헌민 부모님 아래 충남 대덕군 송정리에서 태어나 계룡산 아래 자락에서 유년기를 보낸 다음 대전근교에서 성장하였다. 이후 상경하여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해 1981년과 1983년에 각각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같은 해 유학을 결심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건너가 UC Davis에서 Mark J. Kurth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β -hydroxy ester 기반의 acyclic system을 대상으로 입체선택적 dianionic Claisen rearrangement를 확립하며, acyclic 골격에서 세 개의 연속적 입체중심을 효율적으로 형성하는 새로운 입체제어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dioxane 유도체를 도입하여 모호했던 diastereomer 구조분석을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전이상태 모델을 수립하여 반응 메커니즘의 이해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방법론을 근간으로 당시로는 새로운 연구 경향이었던 새로운 비대칭방법론 개발과 전합성과제로 구조적으로 복잡한 생리활성 (+)-Ikarugamycin과 (+)-capsimycin을 타겟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1987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좌) UC Davis, (우) Chemistry Building

당시를 회고하실 때마다 박사과정 초기의 미국 생활은 설렘과 기대 속에서도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낯섦이 공존하는 시기였다고 말씀하곤 했다. 그 시절 미국 사회에서 한국은 아직 널리 알려진 나라가 아니었고, 동양 출신 연구자에게는 은연중의 편견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러한 우려는 곧 실력으로 해소되었다. 학부생들을 지도하는 멘토 역할에서부터 연구실 내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실험 감각과 성실한 연구 태도는 금세 주목을 받았고, 화학자로서의 존재감은 자연스럽게 뚜렷해졌다. 지도교수 Mark J. Kurth와의 관계는 학문적 지도 이상으로 깊었다. 당시 젊고 매우 열성적인 조교수 Kurth 선생은 “우리는 동료이니 Mark라고 불러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Mr. Yu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할 만큼 학생을 연구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학문에 대한 자신감과 자율성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회상했다. 유찬모 교수가 Davis 시절 또 하나의 큰 행운으로 꼽은 것은 George Zweifel 교수와의 만남이었다. 대학원 입학 초기 자문교수로 처음 만난 뒤 1983년과 1984년 Organometallics와 Advanced Organic Chemistry를 수강하게 되었는데, 이는 유찬모 교수가 유기금속 반응의 논리와 유기합성의 심화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교육기반들은 연구자로서의 철학과 교육자로서의 방향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회자된다. 이 시기 매우 친절했던 동료 학생들과의 교류 역시 연구 활동뿐 아니라 미국 생활 전반을 이해하고 배우는 데 큰 도움을 준 경험으로 기록된다.

대한민국을 빛낸 유기화학자 유찬모(柳燦模) 교수님



(좌) Davis 박사 학위수여식, (우)University of California 100주년 기념현판 밑에서



The Kurth Group, UC Davis(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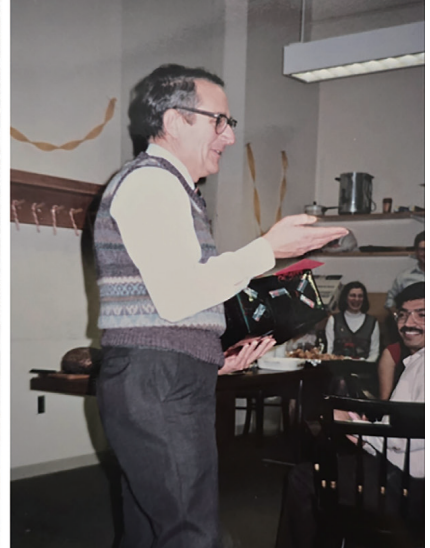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갈 무렵, 미국 서부에서의 유학생살을 마치고 동부로 이동하여 박사후(postdoctoral)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보스턴에 도착한 순간부터 환경은 다시 전혀 새로웠으며, 조그만 하지만 대학만이 존재하는 한적하고 살기 좋은 대학도시 Davis와는 사뭇 다르게 이전과는 다른 생활리듬 속에서 적응할 여유도 없이 촘촘하고 타이트한 연구 일정이 이어졌다. 약 2년 동안 Harvard University E. J. Corey 교수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chiral borane reagent 및 catalyst을 활용한 알데하이드의 비대칭 allylation, allenylation, propargylation 등 본격적인 비대칭 합성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시기 수행된 연구는 다양한 기질에 대해 높은 광학순도와 예측 가능한 입체선택성을 확보하며, 새로운 비대칭 탄소-탄소 결합 형성 전략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Corey 교수가 실험실을 자주 순회하며 구성원들과 논의하던 상황도 인상 깊었던 순간으로 회고되곤 했다. 대부분의 대학원생들과 박사후 연구원들이 압도될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토론자리에서는 연구자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분석과 결론을 명확히 제시했던 경험을 소중하게 여겼다. 연구만큼은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재확인한 시기이기도 했다.

보스턴에서의 생활은 Harvard 내부의 치열한 연구 환경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우수한 연구실 구성원들, 그리고 인근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연구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학문적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시기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강의와 연구 지도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될 만큼 의미 있는 자산으로 남았으며, 연구에 대한 열정과 학문적 관점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더불어 이 시기에 형성된 여러 인연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당시 공유했던 연구적 경험과 협력의 순간들이 장기적인 학문 공동체 형성뿐 아니라 개인적 삶의 한 부분을 이루는 소중한 기반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의 박사후 연구를 마친 뒤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화학연구원(KRICT)에 합류한 시기는 응용화학과 의약화학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확장하는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산업적 수요가 높은 신규 살충제 개발 그리고 proton-pump inhibitor 기반 항궤양제 연구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초 유기화학에서 축적한 반응 설계 능력을 실제 기술 개발에 적용하는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을 쌓았고, 이를 통해 독립된 연구 방향을 구축하고 미래의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빛낸 유기화학자 유찬모(柳燦模) 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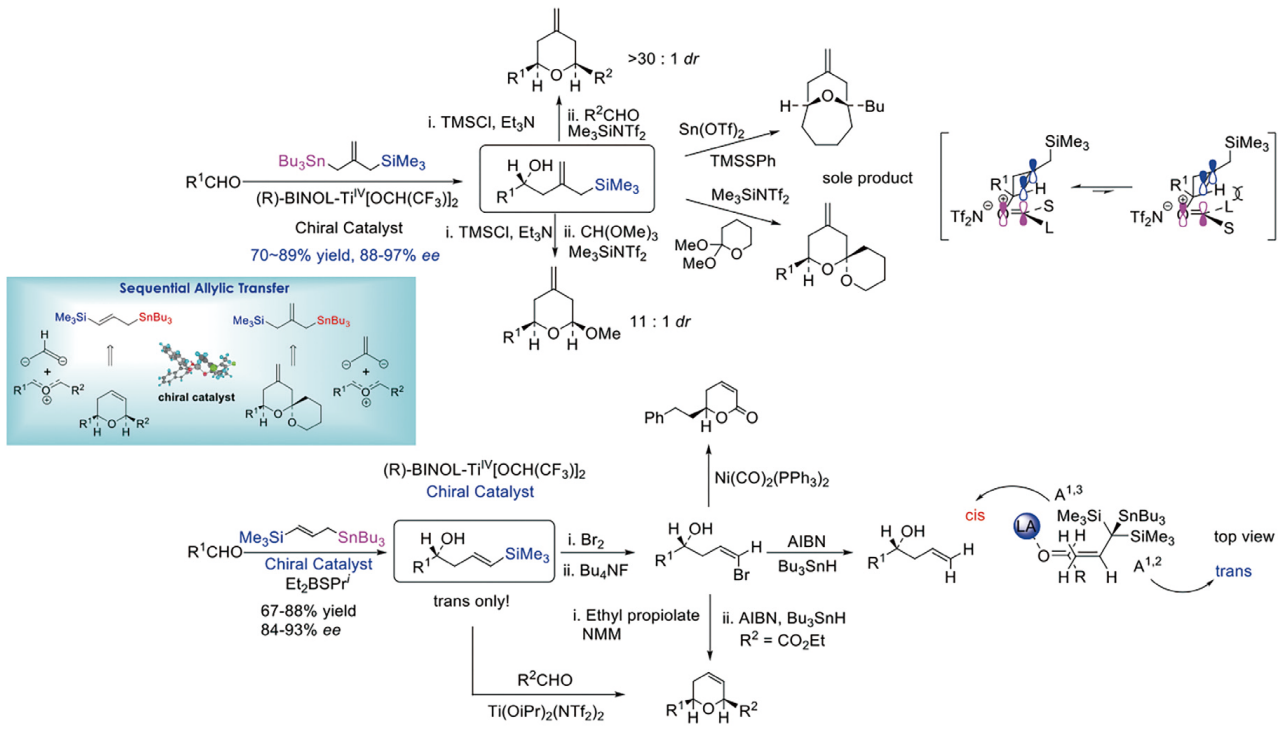
(좌)Harvard 시절, 실험실에서, (중)The Converse Chemical Laboratory building 앞에서 화학과 한국 학생들과 함께
(왼쪽부터 허덕찬, 홍창용, 김성훈, 정낙철, 유찬모), (우) 실험실 X-mas 파티에서 선물을 나눠주는 E. J. Corey 교수

이와 같은 학문적 목표와 교육적 소명의식은 1993년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부임으로 이어졌다. 부임 이후에는 “새로운 촉매의 개발과 반응 설계에 의한 비대칭합성”을 중심 연구 분야로 삼아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왔다. 약 90여 명의 대학원생과 박사후 연구원을 지도하며 축적한 연구 성과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다수 발표되었고, 주요 성과는 여러 총설(review)에서 인용되었으며 과학재단 소식지의 우수연구로 선정되고 언론에 소개되는 등 학계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중 BINOL-Ti(IV) 기반의 chiral Lewis 산과 synergistic reagent인 Et₂BSiP를 결합한 본 반응은, 하나의 bifunctional 시약을 두 차례 연속적으로 활용하는 순차적 알릴전이 전략을 통해 테트라하이드로피란(tetrahydropyran, THP) 골격을 높은 광학·입체선택성으로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합성 접근법을 제시한다.



성균관대학교, 유찬모 교수 연구실

대한민국을 빛낸 유기화학자 유찬모(柳燦模) 교수님



이 방법은 기존 Lewis 산 촉매의 반응성 한계를 극복하면서, allylic transfer 단계에서 형성되는 공통 중간체를 출발점으로 고리화반응을 통합적으로 제어하여 네 가지 상이한 입체화학의 THP 구조를 선택적으로 합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설계는 비대칭 합성의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사례로,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체제어 전략을 제공하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크다.(*Angew. Chem. Int. Ed.* 1998, 37, 2392.; *Angew. Chem. Int. Ed.* 2002, 41, 161). 후속 연구에서는 기존 알릴전이반응에서 주로 관찰되는 SE_2' 경로와 구별되는 독자적 1,2-carbonyl 부가 반응의 특이성을 밝히며 비대칭 반응 경로의 이해를 확장하였다. 이 반응은 다양한 기질에서 일관되게 높은 입체 선택성을 확보하였고 그 합성적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특히 해당 반응에서 얻어진 생성물은 다이하이드로피란(dihydropyran) 등 다양한 기능성 중간체로의 효율적 전환이 가능하고, 이는 위치선택적 비대칭 알릴전이 반응의 반응 경로 제어 및 응용확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연구로 평가된다(*Chem. Commun.* 2003, 1744). 이러한 연구 성과는 국내 유기합성 분야에서 독창적 연구 역량을 뚜렷하게 입증한 사례로 인정받아, 2004년 대한화학회 유기화학분과회의 심상철 학술상 첫 수상자로 선정되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비대칭 반응 설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심화되어, 카이랄 보론을 도입한 연속적 알릴전이 전략을 통해 단일 합성 경로에서 서로 인접한 세개의 연속적 입체중심을 정교하게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Angew. Chem. Int. Ed.* 2006, 45, 1553). 이는 초기 단계에서 구축된 비대칭 반응 제어 원리를 기반으로 반응의 적용 범위를 한층 확장하여, 복잡한 입체 배열을 정밀하게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합성적 토대를 마련한 결과이다. 아울러, 목표 지향적 합성(target-oriented synthesis) 전략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생리활성 등 유용성을 지닌 천연물 및 유도체의 복잡한 핵심 골격을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합성 경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J. Org. Chem.* 2015, 80, 10359.; *Chem. Commun.* 2011, 3811.; *Org. Lett.* 2008, 10, 265.; *Chem. Commun.* 2007, 5025. 등).

대한민국을 빛낸 유기화학자 유찬모(柳燦模) 교수님



(좌)CMDS-RCMA Seminar, (우) CMDS Workshop(2007)

연구 활동에서도 다수의 논문 발표뿐 아니라 다양한 특허 등록을 통해 연구 성과의 깊이와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해왔다. 염소-함유 알릴전이 시약을 이용한 비닐클로로하이드린 및 비닐옥시란의 입체선택적 합성(10-2010-0082150), 새로운 다치환 테트라하이드로피란 유도체 제조기술(1009510010000), 시스-시클로프로판- γ -부티로락톤 합성(KR 0619117), 광학활성 테트라하이드로피란 유도체(KR 0545892), 다중입체성 피롤리딘 유도체(KR 0605159) 등은 실험실에서 구축된 합성 전략이 반응 경로의 정밀 제어와 입체선택성을 바탕으로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기술적 성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알데히드의 촉매 비대칭 알코올 제조방법(제0358684호)과 같은 촉매 기반 비대칭 합성 연구는 학문적 의의뿐 아니라 산업 공정으로의 전환 가능성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 성취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들은 단순한 신물질 개발을 넘어, 기초 연구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응용 가능한 기술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 역량의 축적은 국가적·전략적 연구 과제 수행으로 확장되었다. 1999-2002년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NRL) 과제인 '유기금속촉매반응연구실'에서는 촉매 반응의 정밀 제어 기술과 메커니즘 규명에 집중하여 기초 학문의 토대를 한층 확장하였다. 특히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신 강석구 교수 연구실과의 협력 및 공동 연구는 상호 동반적인 시너지를 높이는 상승작용과 연구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어 KAIST 김성각 교수가 주도하는 1999-2008년 한국과학재단 우수연구센터(SRC) 사업인 '분자설계 및 합성 연구센터(CMDS)'에서는 분자설계 기반 합성 전략, 새로운 촉매 시스템, 기능성 유기 분자 개발 등 기초-응용화학을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배울 것이 많은 구성원과의 다양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발전과 연구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나고야대 Ryoji Noyori 교수의 RCMS(Research Center for Materials Science)-CMDS 세미나, CMDS Kansai Seminar 등 다양한 심포지엄에의 참석은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선사해 주었다. 이 한-일 유기화학 세미나는 유찬모 교수가 학문적 연결망을 확장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유찬모 교수는, 당시 세계 최고라 일컬어지던, 일본 유기화학자들과의 만남이 새로운 연구적 자극을 얻을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2000년 Sendai에서 열린 첫 참석이 여러 의미에서 상징적인 경험으로 꼽았는데, 그 중에서도 Hokkaido University의 Akira Suzuki 교수와의 개인적인 만남은 인상적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발표를 마치고 점심 장소로 이동하던 중, 발표 내용을 흥미롭게 지켜본 한 연구자가 직접 대화를 청했는데 그가 다름 아닌 Suzuki 교수였다고 한다. 그는 발표에서 다루어진 약한 B-S 결합의 반응성 및 특이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해당 접근이 유기금속 반응 설계 측면에서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비록 짧은 대화였으나, 세계적 석학이 연구의 핵심 개념에 공감하고 직접 의견을 건넨 20분간의 짧은 대화는 강렬한 인상을 남긴 순간으로 기록된다. 이와 같은 국제적 교류 경험들은 유찬모 교수의 연구 방향과 학문적 관점을 더욱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이후 이루어진 연구 활동과 교육 철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을 빛낸 유기화학자 유찬모(柳燦模) 교수님



Korea-Japan Organic Seminar(2002)

이처럼 연구자로서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은 자연스럽게 조직 운영과 학과 발전을 위한 역할로 이어졌다.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의 발전사를 언급할 때, 2000년대 초·중반의 주요 변화를 선도한 인물로 많은 구성원들은 유찬모 교수를 떠올린다. 2000-2002년과 2005-2013년에 걸친 장기 재임 기간 동안 제1차 BK-21 실무 및 제2차 BK-21 사업단인 화학물질과학 사업단장으로서 교육·연구 체제의 정비와 미래 전략 수립을 주도하며 학과의 성장 기반 확립에 이바지하였다. 변화와 경쟁이 동시에 요구되던 시기였지만, 학과 운영의 체계화와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앞서 추진력을 발휘하며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BK21 사업단 발탁 과정은 학과의 향후 연구 역량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였다. 평가 준비와 대규모 보고서 작성, 연구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등 모든 단계가 높은 정밀성과 전략적 판단을 필요로 했고, 이를 이끌어낸 노력과 헌신은 당시 학내 구성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연구실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대학원생들은 식사 시간도 아껴가며 밤낮없이 자료를 검토하고 방향을 조율하던 모습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수십 차례의 점검과 논의를 거쳐 제출된 보고서는 학과의 잠재력과 비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결과물이 되었고, 후학들에게 더 나은 연구 환경을 마련하려는 일관된 소명 의식이 그 과정 전반에 담겨 있었다.

이와 같은 학과 운영의 책임감과 헌신은 교육 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학부 강의와 대학원 교육에서 유찬모 교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화학을 바라보는 관점과 연구자로서의 태도를 형성하도록 이끈 교육자로 기억된다. 유기화학 수업에서 자주 인용되던 “Something valuable from almost nothing”이라는 문구는 복잡한 분자를 단순한 출발 물질로부터 창조해내는 유기합성의 본질을 함축한 표현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만들고 어떤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메시지는 학문적 차원을 넘어 삶 전반에 걸쳐 방향성을 고민하게 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졌으며, 실제로 상당수의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화학의 매력과 깊이를 처음 체감하고 학문을 대하는 태도와 진로 선택에서 중요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회고한다.



BK-21 화학물질과학사업단 Symposium(2013)

대한민국을 빛낸 유기화학자 유찬모(柳燦模) 교수님

강의 준비 역시 교육 철학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손으로 정성스럽게 그려 정리한 수업 자료는 학생들에게 높은 완성도의 학습 기반을 제공했고, 많은 학생들이 이를 일종의 '텍스트북'처럼 삼아 기초를 탄탄히 다져갈 수 있었다. 이러한 정성 어린 준비 덕분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앉자리를 경쟁하며 수업을 따라가고자 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칠판에 차근차근 그려지는 반응 메커니즘을 지켜보며, 언젠가 자신도 그와 같은 사고와 실력을 갖추고 싶다는 동기를 얻었던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배우는 내용을 가볍게 넘기지 않도록 일깨워주고, 시간이 지나 연구 현장에서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의미 있게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 점 또한 교육자로서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교육 철학은 연구실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졌다. 대학원생들과의 연구적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아침과 저녁 하루 두 차례 이상 랩미팅 시간을 마련해 연구의 방향성과 세부 전략을 함께 점검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히 실험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단계의 선택 이유와 사용된 reagent 하나하나의 역할을 직접 찾아보고 이해하는 과정이 연구자에게 필수적임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실험자(operator)'가 아닌 주체적 '연구자(research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했다. 실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핵심적인 화학적 통찰을 제시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도왔고, 연구가 올바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밤늦은 시간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안겨주었다. 졸업생들은 LG생명과학연구소, 국내 주요 제약기업 등 생명과학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삼성계열 연구소, LG화학기술원, SK기술원 등 화학 산업 전반에서 전문 연구자로 성장하였다. 더불어 다수의 제자가 Princeton University, Yale University,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MIT 등 세계적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진출해 수학하였고, 첫 번째 박사 졸업생은 현재 미국 다국적 제약기업 Novartis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두 명의 졸업생이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등, 그의 지도를 받은 인재들은 국내외 무대에서도 탁월한 연구 역량을 발휘하며 교육자로서 그의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다.

DGIST 화학물리학과 서상원



서상원 (Sangwon Seo)

DGIST 화학물리학과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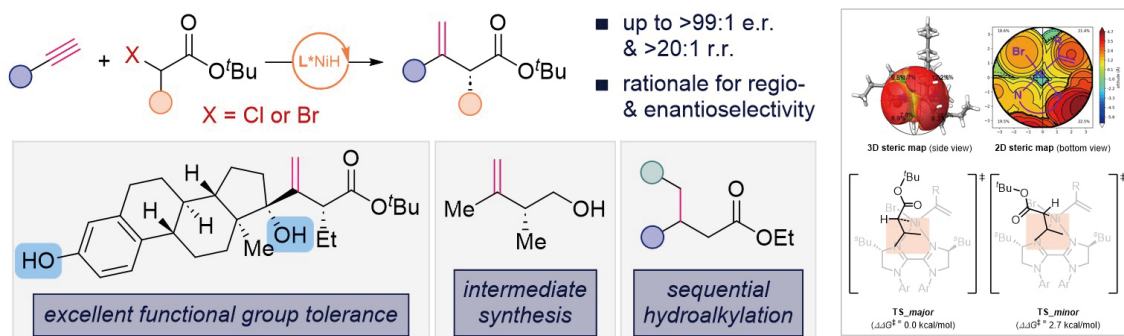
Email | sangwon.seo@dgist.ac.kr

Homepage | <https://sseolab.com>

TEL | 053-785-6535

1. Hyeontaek Namt, Seji Jang†, Dongwook Kim, Sangwon Seo* "NiH-Catalyzed Enantioconvergent α -Alkenylation of Carbonyl Compounds via Markovnikov Alkyne Hydronickellation" *Angew. Chem. Int. Ed.* **2026**, *65*, e8854855.
2. Chanmi Lee†, Dohun Lee†, Sung You Hong, Byunghyuck Jung*, Sangwon Seo* "Recent Advances in Earth-Abundant Transition Metal-Catalyzed Dihydrosilylation of Terminal Alkynes" *Front. Chem.* **2024**, *12*, 1411140.

NiH-Catalyzed Enantioconvergent α -Alkenylation of Carbonyl Compounds via Markovnikov Alkyne Hydronickellation *Angew. Chem. Int. Ed.* **2026**, *65*, e8854855(DOI: 10.1002/anie.8854855)



본 연구는 니켈 수소화물(NiH) 촉매 기반의 새로운 비대칭 합성법을 개발하여, 기존의 카이랄 보조제에 의존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α -카이랄 β -메틸렌 카보닐 화합물을 성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었다. 본 합성법의 핵심은 알카인의 Markovnikov 하이드로니켈화 반응과 입체 선택적인 니켈-라디칼 재결합을 결합한 촉매 전략에 있다. 메커니즘 연구를 통해 산화수가 높은 Ni(II)H 화학종의 수소가 락톤의 부분적 양성자성이 알카인의 말단 탄소와 상호작용하여 위치 선택성을 지배하고, 니켈-라디칼 재결합 단계에서 카이랄 리간드가 제공하는 입체적 반발력에 의해 입체 선택성이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치 선택성과 거울상 선택성을 동시에 달성하였으며, 다양한 기질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합성법을 확립하였다. 개발된 촉매 시스템은 복잡한 생물학적 활성 분자에도 적용이 가능하였고, 여러 천연물 합성의 핵심 골격으로 쓰이는 카이랄 화합물을 기존 방법에 비해 좀 더 간결하게 합성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해 도입된 β -메틸렌 작용기를 활용한 순차적 하이드로알킬화 반응을 정립하여 복잡한 β -치환 카보닐 화합물 합성으로도 성공적으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존 방법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높은 광학 순도를 지닌 β -메틸렌 카보닐 화합물의 효율적 합성과 분자의 구조적 복잡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는 향후 의약품, 천연물 및 첨단 화학 소재 합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물질 개발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대학교 화학과 이민희



이민희 (Min Hee Lee)

중앙대학교 화학과 부교수

Email | minheelee@ca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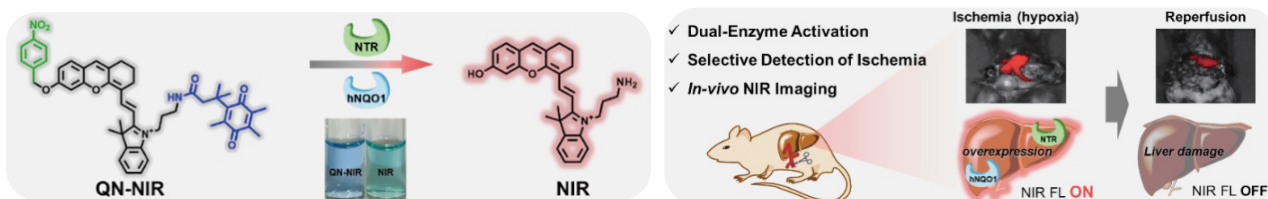
Homepage | <https://ochem158.wixsite.com/nsb403>

TEL | 02-820-5292

1. M. Kang, J. Kil, M. M. Fortibui, M. H. Lee*, 'Illuminating Hypochlorite: Advances in Fluorescent Probe Design and In Vivo Imaging' *Coord. Chem. Rev.* **2026**, 552, 217505.
2. S. A. Yoon, J. Roh, J. Kil, S.-K. Ko*, M. H. Lee*, 'Hypoxia-responsive fluorescent aonafide prodrugs for biomarker-activated cancer Theranostics'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2026**, 447, 138911.
3. S. J. Hong, H. Lee, E. J. Lee, M. Kim, H. J. Ryu, J. H. Koo*, M. H. Lee*, 'In Vivo Monitoring of Hepatic Ischemia Using a Dual-Enzyme Activated Near-Infrared Fluorescence Probe' *ACS Sensors* **2025**, 10, 6074-6083.
4. S. J. Hong, E. Jeon, M. J. Kim*, M. H. Lee*, 'Dual-Lock System for High Sensitivity and Selectivity in Redox Enzymes Activation and Imaging' *Anal. Chem.* **2025**, 97, 1143-1150.

In Vivo Monitoring of Hepatic Ischemia Using a Dual-Enzyme Activated Near-Infrared Fluorescence Probe
ACS Sensors, 2025, 10, 6074-6083 (DOI: <https://doi.org/10.1021/acssensors.5c01694>)

A dual-enzyme activated NIR fluorescent probe



본 연구는 간 이식 및 수술의 주요 합병증인 간 허혈-재관류 손상(HIRI, Hepatic Ischemia-Reperfusion Injury)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저산소증 환경에서 과발현되는 두 가지 환원효소인 hNQO1(human NAD(P)H:quinone oxidoreductase 1) 및 NTR(Nitroreductase)에 의해 이중 활성화되는 근적외선 형광 프로브 QN-NIR을 개발한 연구이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재관류 단계의 활성산소 검출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팀은 허혈 상태의 본질적인 특징인 저산소증(Hypoxia)을 직접 타겟팅하여 진단의 정밀도를 높였다. Hemicyanine 근적외선 형광체 골격에 두 효소에 각각 반응하는 TLQ(Trimethyl-locked quinone) 및 NB(Nitrobenzyl) 작용기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PET(Photoinduced Electron Transfer) 및 ICT(Internal Charge Transfer) 메커니즘을 이용한 효과적인 형광 소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해당 프로브는 두 효소가 모두 존재하는 환경에서만 작용기가 동시에 절단되며 708 nm에서 강한 Off-On 형광 신호를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정상 산소 분압 조건에서의 위양성 신호를 낮추고 높은 신호 대 잡음비를 확보하였다. 세포 실험을 통해 저산소 유도 시 형광이 활성화됨을 입증하였고, in vivo 모델에서는 간 허혈 발생 시 실시간으로 형광 신호가 증가함을 시각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허혈 부위의 정밀한 모니터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재관류 후 ROS 수치가 높아지는 단계와 허혈 단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러한 이중 활성화 메커니즘은 특정 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고형암이나 뇌 질환 등 저산소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병리적 상태를 관찰하는 데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저산소증 기반의 효소 반응을 추적하는 새로운 진단 플랫폼을 제공하며, 향후 고부가가치 기능성 바이오 소재로서 임상적 활용 범위를 크게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Where I'm From" Article for Young-Career Organic Chemist

성신여자대학교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유소연 교수



유소연 (Soyeon Yoo)

성신여자대학교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조교수

Email | soyyoo@sungshin.ac.kr

2026-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조교수

2024-2026 | University of Pennsylvania, Visiting Postdoc.

2022-2026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Postdoc.

2017-2022 | 광주과학기술원, Ph.D. (지도교수: 한민수)

1. Postdoc 연구실의 PI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방은경 박사님은 국내 핵산 전달용 지질나노입자(LNP) 연구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연구자로, siRNA 및 mRNA 전달체 개발 분야에서 약 20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 기반을 구축해 오셨습니다. *Bioact. Mater.*, *Angew. Chem. Int. Ed.* 등 최상위 학술지에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신규 LNP 조성에 대한 특허 확보와 기술 이전을 통해 연구의 실용화까지 성공적으로 연결해 온 점에서 학문적·산업적 영향력이 매우 큰 연구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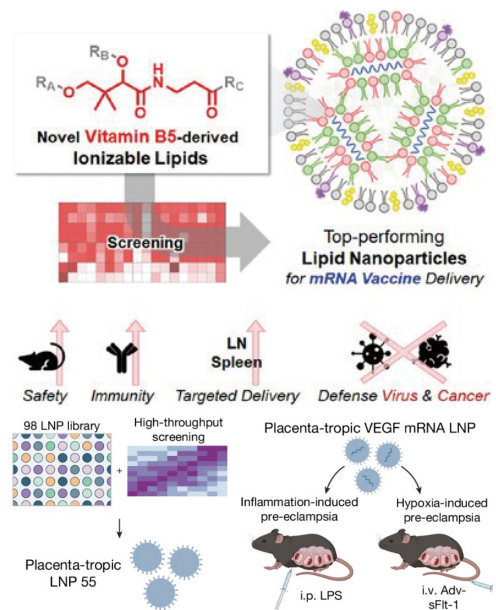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Michael J. Mitchell 교수님은 전 세계적으로 LNP 기반 약물 전달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자로, *Nature*를 포함한 다수의 최상위 저널에 연구를 발표하며 해당 분야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mRNA 바코딩 기반 *in vivo* 고속 스크리닝 기술을 통해 LNP 설계와 최적화 패러다임을 크게 확장하였으며, 태반 등 특정 조직을 정밀하게 타겟하는 전달 시스템 개발로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유소연 교수

2. Postdoc 연구실의 가장 중요한 학술적 성과는 무엇인가요?

KIST 방은경 박사님 연구팀은 LNP의 임상 적용에서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는 독성과 면역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비타민 B5 유래 이온화 지질과 트레할로스 당지질을 도입한 신규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mRNA 전달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독성과 장기 부담을 유의하게 낮추고, 림프조직 선택성까지 구현함으로써 LNP의 안전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실제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며, 안전성 중심 LNP 설계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연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 Michael J. Mitchell 교수님 연구팀은 in vivo pooled screening 기반의 대규모 LNP 라이브러리 분석을 통해 organ-selective delivery 설계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간 중심 전달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 LNP의 한계를 넘어 extrahepatic 전달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태반 특이적 LNP를 개발하여 mRNA 치료제를 질한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장기 특이적 핵산 치료의 가능성을 Nature에 보고하는 등 해당 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 10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향후 10년 동안의 목표는 PI로서 신규 지질나노입자 기반 전달체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임상 단계까지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생유기화학적 설계를 기반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특정 조직이나 세포를 정밀하게 타겟할 수 있는 전달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질환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성과가 실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실 구성원들이 각자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 PI를 목표로 하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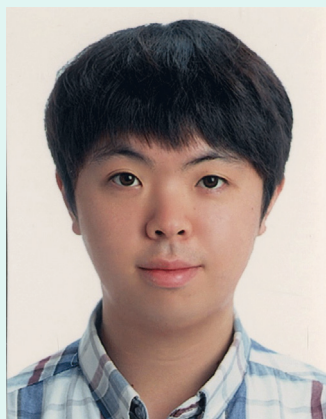
임용 준비 과정을 거치며 느낀 점은 꾸준함과 도전의 중요성입니다. 충분히 준비된 이후를 기다리기보다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실제로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역시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경험으로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기회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후속 연구자분들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5. 현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를 소개해주세요.

기능성 유기 분자 합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질환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전달체 라이브러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광 센서 기반의 고속 분석법을 도입하여 LNP의 물성 및 유전자 전달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핵산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Where I'm From" Article for Young-Career Organic Chemist

한국화학연구원 이석현 박사



이석현 (Sukhyun Lee)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 선임연구원

Email | sh_lee@kRICT.re.kr

2025-현재 |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2024-2025 | Scripps Research, Postdoc.

2023-2024 | 포항공과대학교, Postdoc.

2018-2023 | 포항공과대학교, Ph.D. (지도교수: 이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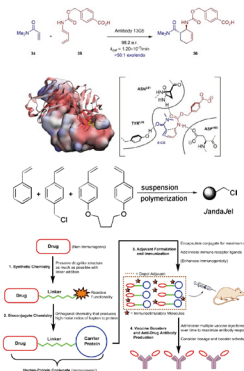
1. Postdoc 연구실의 PI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Kim D. Janda 교수님께서 1980년 University of South Florida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셨고, 1983년과 1984년에 University of Arizona에서 deoxybouvardin 합성 연구를 수행하시면서 각각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후, Scripps Research의 전신인 Research Institute of Scripps Clinic에서 postdoctoral fellow로서 Richard Lerner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후 1987년부터 현재까지 Scripps Research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기합성을 톨로 활용하여 의약화학, 면역학, 신경약리학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Postdoc 연구실의 가장 중요한 학술적 성과는 무엇인가요?

Kim D. Janda 교수님 연구실의 가장 중요한 학술적 성과는 크게 3가지로 나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초창기에는 catalytic antibody 분야 연구를 활발하게 하셨는데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를 화학반응의 촉매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셨습니다. 항체가 특정 항원을 선택적으로 인지한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transition state를 모방한 항원에 대한 항체를 유도하고, 이를 촉매로 활용하여 다양한 화학 반응의 energy barrier를 낮추어 원하는 반응을 유도하는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solid-phase synthesis를 기반으로 한 combinatorial chemistry 분야에도 기여하셨습니다. 특히 solid support로 JandaJel resin을 개발하였는데 이 resin은 다양한 유기용매의 호환성이 좋아서 고체상 반응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저분자 화합물을 carrier protein에 conjugation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인식하지 못하는 다양한 소분자에 대해서도 항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니코틴, 코카인, 펜타닐과 같은 물질에 대한 백신 개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substance use disorder 치료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이석현 박사

3. 연구 경험 중 기억에 남는 aha moment 혹은 breakthrough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여러 step에 걸쳐 합성을 진행하다가 benzyl을 deprotection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benzyl protecting group을 다룰 때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필 이번에는 반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부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Protecting group을 바꾸려면 처음부터 많이 돌아가야 해서 크게 좌절하고 있었는데 문헌 조사를 통해 다양한 benzyl deprotection 조건을 시도해본 결과 다행히 깔끔하게 benzyl을 제거할 수 있는 반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다양한 조건을 탐색하고 반응 앞에서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4. Postdoc 연구실 PI와의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해주세요.

제가 속했던 연구실은 주기적으로 피자파티를 하면서 연구실 구성원 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PI 교수님께서 간식을 좋아하셔서 피자파티를 할 때마다 매번 다른 간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도 간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 당시 랩에서 먹었던 간식은 제가 먹어봤던 간식 중에 가장 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는 디저트가 너무 달아서 toxic 하다고 말했었는데 그 후로도 더 다양한 간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덕분에 힘들 때 당 보충이 충분히 되었던 것 같네요.

5. 현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를 소개해주세요.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희귀질환치료기술연구센터에서 ASO(antisense oligonucleotide)를 구성하는 nucleoside monomer 합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기화학 차원에서 nucleoside에 다양한 변형을 통해 새로운 모달리티에 해당하는 ASO의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small molecule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다양한 유전질환과 희귀질환 치료에 기반이 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0회 젊은 유기화학자상 수상자 공모

제20회 젊은 유기화학자상 수상자 공모

제20회 젊은 유기화학자상 수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유기화학분과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 상 자 격 대한화학회 유기화학분과회 회원으로 유기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유기화학 분야 및 분과회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 시상일 기준(2026년 7월 7일 예정)으로 최종학위 취득 후 15년 이내 연구자에 수여
(다만, 전년도까지 3년 이상 연속으로 유기화학분과회비를 납부하였으며, 해당 연구업적은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추 천 자 격 본인, 유기화학분과회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인단 및 학술상 심사위원

심사대상업적 최근 3년 동안 발표한 논문 중 대표논문 1편 (5년간 발표한 논문 목록을 참고자료로 심사에 반영)

제 출 서 류 추천서 1부 (유기화학분과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양식을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필요에 따라 변형 가능함)

제 출 마 감 2026년 5월 31일

제 출 처 KAIST 김현우 총무부회장, hwkim@kaist.edu

수 상 내 역 상장 및 부상

수 상 시 기 유기화학분과회 하계 워크숍 (2026년 7월 7일 예정)

젊은 유기화학자상 수상자 리스트

홍승우 KAIST (수상연도 : 2012)	김환명 아주대학교 (수상연도 : 2013)	최수혁 연세대학교 (수상연도 : 2014)	최태림 서울대학교 (수상연도 : 2015)	김현우 KAIST (수상연도 : 2016)
조은진 중앙대학교 (수상연도 : 2017)	주정민 부산대학교 (수상연도 : 2018)	유은정 경희대학교 (수상연도 : 2019)	한순규 KAIST (수상연도 : 2020)	김민 충북대학교 (수상연도 : 2021)
김도경 경희대학교 (수상연도 : 2021)	조승환 POSTECH (수상연도 : 2021)	이준석 고려대학교 (수상연도 : 2022)	배한용 성균관대학교 (수상연도 : 2022)	이민희 숙명여자대학교 (수상연도 : 2022)
이윤미 연세대학교 (수상연도 : 2023)	김철재 충북대학교 (수상연도 : 2023)	김주현 경상국립대학교 (수상연도 : 2023)	이충환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수상연도 : 2024)	이송이 부경대학교 (수상연도 : 2024)
권용석 성균관대학교 (수상연도 : 2024)	한서정 서강대학교 (수상연도 : 2025)	김현진 한국화학연구원 (수상연도 : 2025)	김현우 POSTECH (수상연도 : 2025)	

공지사항

유기화학분과회비 납부 안내

유기화학분과회 연회비는 3만원입니다. 유기화학분과회비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화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https://kchem.org>)

- 대한화학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회원 홈” 클릭
- 상단의 “회비 결제” 탭으로 이동 후, 유기화학 선택 하여 하단의 “결제” 버튼 클릭하여 결제 진행
- 결제 이력 및 영수증은 “내정보” 탭으로 이동하여 확인

광고 및 후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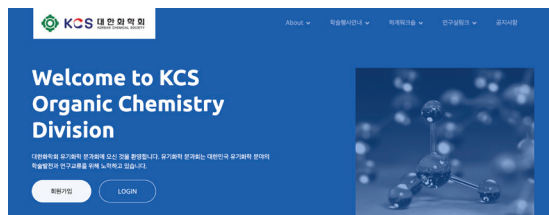
유기화학분과회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 및 연구실의 협력과 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격월 발행되는 NEWSLETTER에 기업 및 연구실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업 광고의 경우 유기화학분과회 홈페이지 하단에 배너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유기화학분과회의 발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및 후원 담당: KAIST 김현우 총무부회장, hwkim@kaist.edu)

홈페이지 회원 정보 수정

유기화학분과회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kcsorganic.org>). 신입 회원께서는 회원가입 후 연락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전화번호, 연구실 홈페이지 등의 개인정보는 회원님께서 로그인 후 MY PAGE에서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담당: POSTECH 김현우 기획실무이사, khw7373@postech.ac.kr)



유기화학분과회 소식 접수 안내

유기화학분과회의 공지사항, 채용공고, 경조사, 이메일 수정·추가 요청 등 주요 소식은 아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이메일: kcsorganic@naver.com

보조 이메일: ymlee@kw.ac.kr (광운대학교 기획부회장 이윤미)

공지사항

유기화학분과회비 납부자 명단 (2026년 4월 30일 기준, 202명 납부)

Bongo Arrhon Mae	Jean Bouffard	Nimse Satish Balasah	강성민	강은주	강태호	강택
강호웅	고혜민	공진택	곽재성	구상호	구세영	권선범
권용석	권용억	권용주	권태혁	금교창	김건우	김기태
김도경	김동수	김동욱	김묘정	김민	김범진	김병선
김상민	김선영	김성곤	김세건	김영미	김용석	김용주
김원석	김유영	김윤경	김은하	김재연	김재현	김정곤
김정원	김종승	김종훈	김주현	김주희	김진우	김진호
김철재	김태정	김필호	김학중	김한영	김현우(KAIST)	김현우(POSTECH)
김현진	김혜진	김희권	동방선	문봉진	문혜원	민선준
박보영	박수호	박영석	박윤수	박정민	박정우	박종민
박지훈	박진균	박철민	박형근	박해정	배성우	배한용
서경덕	서상원	서성용	서성은	서지원	성단비	성시광
손영현	손정훈	손종우	송하영	신광민	신석현	신승훈
신영희	신인재	신인지	심수용	심재호	심재훈	심태보
안태양	양정운	여현욱	염현석	이상국	유기선	유성현
유소연	유은정	유자형	윤소원	윤주영	윤창수	윤화영
윤효재	이강문	이강주	이광호	이기성	이기연	이동환
이상현	이석현	이선우	이성기	이송이	이수민	이안나
이안수	이영준	이영호	이예진	이용호	이원철	이윤미(광운대학교)
이윤미(KAIST)	이은성	이은지	이정규	이정태	이정효	이준석
이준호	이준희	이지연	이철범	이충환	이필호	이혁
이혜정	이호재	이홍근	이효준	임상민	임지우	임현석
임희남	장석복	장원용	장원준	장혜영	전병선	전용웅
전홍준	정낙천	정병혁	정소현	정시원	정원진	정효성
조경일	조동규	조승환	조우경	조우현	조종현	조준혁
조천규	주정민	지형민	진민구	천철홍	최경민	최수혁
최용석	최이삭	최준원	추현아	한민수	한상일	한서정
한수봉	한순규	한예리	한정태	허정녕	현지영	홍대화
홍석원	홍성유	홍순혁	홍승우	황승준	황종연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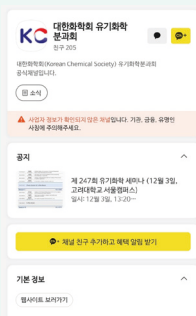
유기화학분과회 카톡 채널 가입

유기화학분과회는 별도의 카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유기화학분과회의 NEWSLETTER나 주요 공지 사항을 이 채널 통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기화학분과회의 공지 및 안내 사항의 신속하고 원활한 전달을 위해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채널 가입과 인증을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카톡 채널에 가입하신 회원분께서는, 유기화학분과회 카톡채널에 본인의 '소속' 및 '이름'을 메세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경희대 약과학과 박보영)

2. 신규 가입 경로

- a) 카톡에서 '검색(가장 윗 줄에서 돋보기)' 누름 → '유기화학분과회' 검색 → 채널에서 '대한화학회 유기화학분과회' 추가 → '소속' 및 '이름'을 메세지로 발송
- b) 채널 URL(http://pf.kakao.com/_xexaxkRb/friend)을 통하여 채널 추가 → '소속' 및 '이름'을 메세지로 발송



※ '소속' 및 '이름' 인증 절차의 필요성

유기화학분과회 카카오톡 채널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혹 홍보나 판매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부적절한 인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유기화학분과회의 소중한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및 '이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가입 신청을 확인하여 친구 그룹에 추가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생 및 학부생 유기화학분과회 소식지 구독 신청 안내 (메일링 리스트 등록)

유기화학분과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유기화학의 주역인 대학원생 및 학부생에게도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및 관심 있는 학부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취합하고 있으니 명단을 전달해 주시면, 향후 1년간 뉴스레터 발송에 활용하겠습니다.

엑셀 양식: 이름 / 이메일 / 소속

보내실 주소: kcsorganic@naver.com

참고 사항: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뉴스레터 발송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1년 활용 후 폐기됩니다.

공지사항

NEWSLETTER 발행 안내

유기화학분과회 NEWSLETTER는 격월로 발행됩니다. NEWSLETTER에는 회원들의 새로운 소식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 안내 뿐만 아니라 참가 후 소감이나 만평 등의 유기화학분과회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수록하고자 합니다. 전해 주시는 소식들은 모든 유기화학분과 회원들과 공유되는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유기화학분과회 NEWSLETTER는 분과회원들에게 이메일 및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며, 유기화학분과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유기화학분과 회원께서는 소속연구실 대학원생 및 연구원들도 NEWSLETTER를 볼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빛낸 유기화학자” 및 “국내 연구 동향” 섹션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원고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1. 대한민국을 빛낸 유기화학자
 - 게재를 원하시는 회원(또는 지인, 제자 등)이 직접 A4 한 장 분량 원고로 작성
2. 국내 연구 동향
 - 최근 회원들의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직접 A4 한 장 분량 원고로 작성
 - 연구실 사진, 연구 요약 및 최근 우수 연구결과 소개 포함
3. 회원들과 연관된 소식들
 - 학회, 도서 출판, 홍보, 수상 등

뉴스레터 담당: 경희대학교 박보영 기획실무이사, boyoungy.park@khu.ac.kr
POSTECH 김현우 기획실무이사, khw7373@postech.ac.kr

유기화학의 미래를 위한 잡담회

- 취지 / 기간 (2026년 7월 9일 ~ 9월 30일)

비정형화된 포맷하의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연구 현황 공유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한 활발한 아이디어 도출, 대한화학회 유기화학분과회를 통해 회의비 지원(50,000원/명)

- 방법

- Step A. Core 조직인원 3인에 의하여 (1) 토픽 (2) 일시 (3) 장소 확정 후 유기화학분과 학술팀에 전달(3개월 전)
- Step B. 유기화학분과회에서는 간단한 심의 후 유기화학분과회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정보 게시(일정이 다른 행사와 겹치거나, 주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도의 상황을 제외하면 모두 승인 예정)(2개월 전)
- Step C. 개별 PI는 관심 잡담회의 Core 조직인원에게 참석 통보(1개월 전)
- Step D. 자유로운 형식의 잡담회 실시(행사 당일)
- Step E. 행사 다음 유기화학분과회 소식지 게재를 위하여 사진과 요약문을 유기화학분과회 기획팀에 전달(행사 1주일 후)

- 예시 주제

1. 알칼로이드 천연물 전합성의 최근 연구 동향
2. Ni 촉매를 활용한 유기 반응 개발의 시급한 목표
3. 말띠 화학자들의 최신 연구 관심사
4. 한강 이북지역 유기화학 연구 동향 공유

-연락 및 문의처: 서울대학교 이흥근 학술부회장, hglee@snu.ac.kr
아주대학교 최준원 학술실무이사, junwchoi@ajou.ac.kr
서강대학교 한서정 학술실무이사, sjhan@sogang.ac.kr
성균관대학교 신광민 학술실무이사, kmshin@skku.edu

Bulletin of Korean Chemical Society

대한화학회 학술지(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BKCS)에서 발표된 유기화학 관련 논문의 인용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 -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Campaign 4.0-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화학회 발행지가 국제적인 평가 지표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술지의 인용도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본 캠페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NEWSLETTER에서는 지난 두 달간 BKCS에 출판된 유기화학 분야 논문의 제목과 교신저자를 정리하여 소개드리오니,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회원 여러분께서 논문 인용 및 확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학회와 학술지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BKCS 유기화학 분야 논문 리스트

연번	게재연월	키워드	논문 제목	교신저자
1	2026-3	C-H activation, eco-friendly, green chemistry, heterocyclic compound, microwave irradiation, organic synthesis, transition-metal catalyst	Research on synthesis of microwave-assisted heterocyclic compounds with eco-friendly solvents and transition metals via C-H activation	이혜정
2	2026-3	El-Sayed's rule, naphthalic anhydride, photodynamic therapy, photosensitizer, thionation	Trithio-naphthalic anhydride-based photosensitizer for photodynamic activity	이송이

OM&CAT-7



Registration fee

<https://sites.google.com/view/omcat2026/>

- Professor, Researcher: **400,000 KRW (300 USD)**
- Student: **150,000 KRW (100 USD)**

How to Register (Poster presenter / Participants)

*Early Registration Deadline: **March 31,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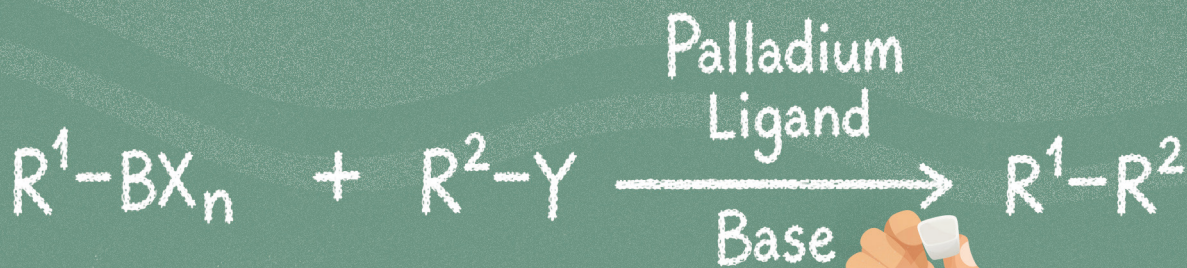
*Poster Presentation Submission Deadline: **March 31, 2026**



@omcat7korea

가르침이라는 촉매, 연구라는 결실.

스승의 날을 맞아 모든 연구자와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TCI가 그 여정을 함께합니다.



Suzuki-Miyaura Cross-Coupling Reaction

시약의 기준을 정하다

